

## 총장-뉴스레터 – 93 (2024-11-8)

### 열 두 지파의 땅 분배 (여호수아 13-21 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수아 21:43-44)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후반의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하여 은 사백 세겔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의 전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또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과 땅은 서로 떨어야 떨어 수 없는 관계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 준다.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 곧 '유산'으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삼으시는 가시적인 표지이다.

#### 땅을 나누라는 지시를 내리다 (13:1-7)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점령한 땅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한 땅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여 땅을 쟁취하는 것 보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러가지 변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위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때려야 떨어 수 없는 깊은 관계성을 염두에 둔 유산이다.

#### 요단 동편 땅과 두 지파 반의 경계 (13:8-33)

모세가 시혼과 옥으로부터 탈취한 이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헤브론 산에 이르는 현재의 요르단 지역이다. 이 땅은 가축을 돌보기에 적합한 땅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먼저 이 땅에 정착한 대신에 요단 서쪽 정복 전쟁에서

자신들이 앞장 서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 받고 정착한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대로 실행하였다.

###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 기업 (14:1-5)**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다.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땅은 제비를 뽑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이나 강자의 법칙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각 지파 안에서도 이런 식으려 씨족마다 제 몫의 땅, 곧 팔아 넘길 수 없는 기업을 나누어 받았다. 개인이 세운 공과 자기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도 땅 분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땅을 나누는 일은 갈렙의 경우와 더불어 시작하여 에브라임의 한 성읍을 여호수아가 나누어 받는 것으로 끝난다. 나중에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이 성읍에 장사지낸다. 여호수아는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근거로 한 성읍을 '구할' 수 있었다.

### **도피성 지정과 지침 (20:1-9)**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만든 제도가 도피성이다.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는 반드시 피의 보수자를 통하여 그의 피값을 치루도록 정하였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결국 그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도피성은 여섯 곳이 지정되어 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모두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였는데 이곳들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를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도피성에 머물러 살게 된 살인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됨을 알게 한다.

### **생각하기 21:43-45 (약속 성취 및 이스라엘의 안식)**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이중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 곧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모든 대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땅을 소유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뜻을 확대하여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이 말씀으로써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